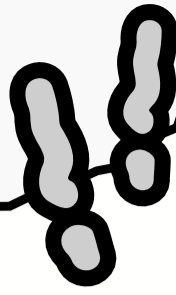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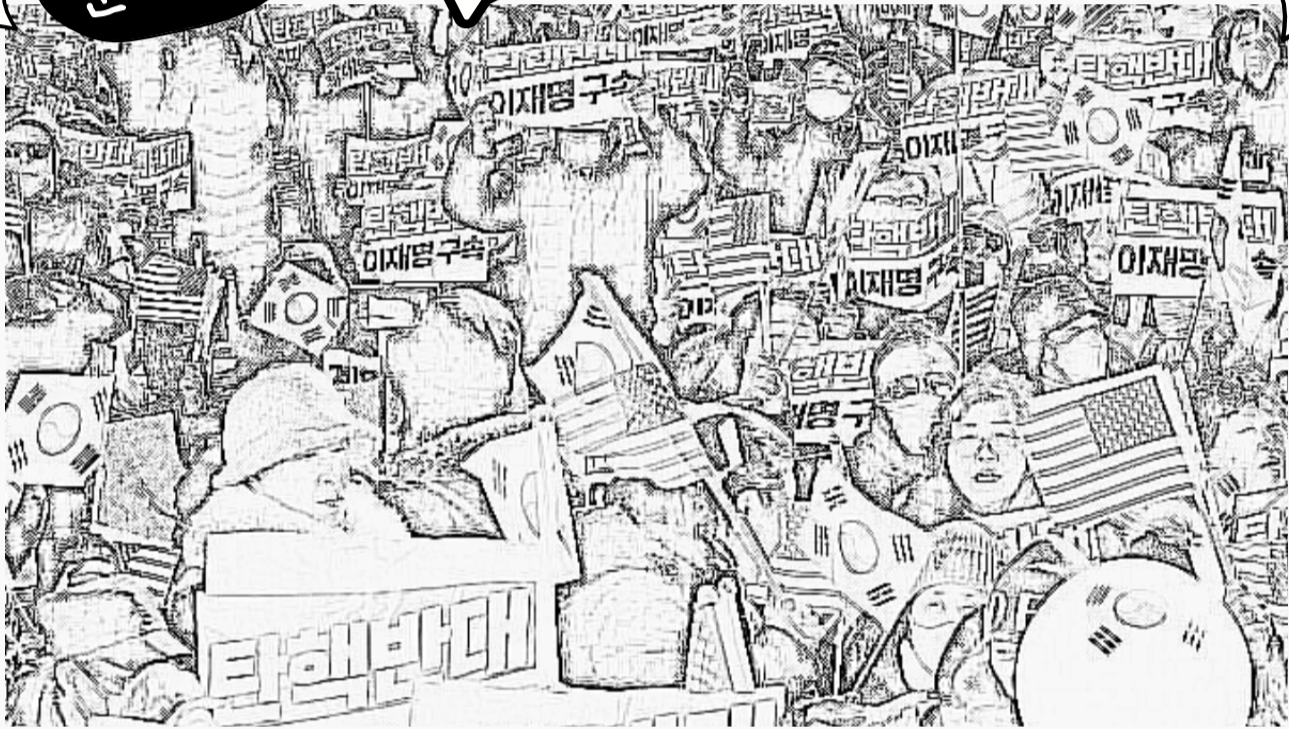


??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지금, 극우 세력에 맞서야 한다

준비 6호



지금 극우에 맞선 대중 시위가 필요한 이유
완전히 다른 사회, 이대로 될까? 민주당의 잘못된 선택들

주목

주 69시간 근무제 시즌 2 ?! 반도체 특별법안, 당장 폐기하라

당신도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도 당신이 궁금하다

관련 글 보기



법안의 논리는 단순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장시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며 국힘을 거들었다. 그런데, 반도체 실적 위기가 노동자들이 일을 덜 해서일까?

DEMO CLUB VERY FRONT

홈페이지



텔레그램 소식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릅니다 극우에 맞선 대중 시위가 필요한 이유

요즘 극우 세력 집회, 혹시 보셨나요? 경찰 추산에 따르면, 지난 주 광화문 집회에는 3만 8천 명, 여의도 집회에는 4천 명, 부산역 앞에는 1만 3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가자들의 강한 에너지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핸드폰조차 보지 않으며 집회에 집중하는 젊은 사람들도 꽤 보였습니다.

위기감으로 행동하는 극우, 안도감을 느끼는 우리?

극우 세력은 위기감을 동력으로 점점 크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에 경악했던 사람들 중에도, 극우 세력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집회의 최근 규모는 어떤가요.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 기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주말 추운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파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처벌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확산됐습니다.

2017년의 경험을 근거로 '이번에도 탄핵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분열했고, 거리에 모인 극우세력도 소수였으며, 민주당은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좌클릭'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반대로 기울고 있습니다.

대중 행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규모로 모여야 합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다수가 누구고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국힘과 극우가 중도층 여론을 이끌고, 헌법재판소-수사기관-법원도 그 영향을 받아 휘청이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날림 재판'이라는 우파들 비판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선고를 예정 당일 연기해버렸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 집회가 최상목 탄핵을 앞장서 요구하고 극우 행보를 규탄하며 더욱 날카롭고 분명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문화공연보다도 사회대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우클릭에 대한 쓴소리를, 시위와 파업 등 대중 행동을 확대할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더 들을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야만, 윤석열과 극우 세력을 치워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 이대로 될까? 민주당의 잘못된 선택들

내란 내각 탄핵의 골든타임을 놓친 소심함

내란 세력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가장 높았던 시점은 계엄 직후였습니다. 바로 이때, 윤석열은 물론 한덕수, 최상목 등을 한 번에 탄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이 스스로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한다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무망한 조건을 걸었고, 이들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타협했습니다. 이는 결국 극우세력이 반복 탄핵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자극할 명분을 주고, 내란 세력이 윤석열 수사를 지연시킬 시간을 벌게 했습니다.

극우 성장의 책임: 혐오세력과 타협, 개혁 배신

그동안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극우 기독교 세력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저희도 다 반대한다"고 하면서 극우의 혐오 논리에 동조해왔습니다. 또, 민주당의 개혁 배신에서 온 냉소, 그들이 국힘과 함께 만들어 온 잔인한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가 준 좌절감이 극우의 성장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대놓고 우클릭: 민주시민은 잡은 물고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벌써 집권여당이 된 것처럼 '민주시민'은 찬밥 취급하고 중도보수층에게 '통합'을 앞세워 구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국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안의 주52시간제 상한 무력화 내용에도 찬성하려 하며, '친기업-감세-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내란 세력 처벌과 윤석열 이후의 사회변화를 그저 맡겨둔다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